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탁

남원시는 지난 20일,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이 고향사랑 기탁금 500만원을 기탁해, 이번 기부로 3년 연속 총 1,500만원 기부 실적을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로 빛을 발하는 춘향제처럼, 고향사랑기부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기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145만 명이 방문한 이번 춘향제를 발판 삼아, 기부 재원을 활용하여 남원을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고 청소년 인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로공사 남원지사,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도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일 1가구 소동행정으로 발굴한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5명에게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병진)에서 지난 20일 지원을 위해 기탁한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이번 기탁은 지난 2월 19일 도봉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원되었으며, 이 외에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5월 12일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사진 10명 지원과 5월 27일 다문화 및 소외계층 교육비 10명에게 지원되기도 하였다. 이병진 지사장은 이번 기탁에 대해 “앞으로도 도봉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진숙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장학금 기탁

임진숙 진안군청 행정복지국장이 퇴직을 앞두고 28일 진안시문화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진숙 국장은 “지역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기탁금이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춘선 진안군 안전환경국장,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진안군청 박춘선 안전환경국장이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고향사랑 실천으로 장식했다. 박춘선 국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28일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진안군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뤄진 것으로, 박 국장의 진정성이 담긴 마지막 행보로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박춘선 국장은 1997년 11월 동향면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 27년간 진안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왔다. 특히 지난 2025년 1월에 안전환경국장으로 승진하여 진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4년 장애인 재활서비스 수행실적·자원활용 우수성·사업운영 등 평가 ‘우수’ 선정

남원시보건소가 지난 20일 열린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 성과대회에서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 보건소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장애인 재활서비스 수행실적과 자원활용 우수성, 사업운영 노력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남원시보건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요구도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을 통한 보건-의료-복지 지역자원과 연계 협력, 다양한 재활사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지역사회 장애인 7% 이상을 등록해 장애인 재활훈련 및 통합보건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재활사업, 장애인 차량·교통 지원으로 재활 사각지대 퇴원환자 장애인의 일상생활 독립지원을 위한 재활치료 접근성을 위해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2025년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 35개소 선정

군산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를 육성하고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군산 대표 맛집’ 35곳을 28일 선정했다.



군산 대표 맛집은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해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 4월 진행된 영업자 신청 및 시민 설문조사 등 추천을 받았으며,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군산맛집 발굴 육성위원회의 현지 시식 평가를 거쳐 진행했다. 육성위원회는 음식점 음식의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군산의 맛을 대표하는 군산 맛집으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신규 지정 맛집은 미장동의 모트 1개소로 맛뿐만 아니라 위생·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앞으로 모트는 기존 맛집 34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맛집 지정서 및 표지판이 전달되며,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누리집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 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정보를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군산맛집 선정 외에도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친절 및 위생교육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군산 대표 맛집의 위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진숙자 위생과장은 “군산 대표 맛집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군산시의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이를 통해 군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진안군자연보호협의회, 군민대상 환경체험교육 추진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회장 김지수)는 지난 20일 진안군대안도인회 2층 대강당에서 자연보호 주민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체험 교육은 진안군민 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생활 교육, 의약품 폐기물 처리방법 및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천연 재료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등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자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함



전북형양성평등센터, 결혼이주 여성청년 간담회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28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청년의 지역 내 정착 경험과 정책 수요를 청취하기 위해 2025 청년의 발원 : 결혼이주 여성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결혼이주 여성청년이 참여해 전북 지역에서의 정착 경험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 차별 경험과 사회적 고립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정정희 원장은 “결혼이주 여성청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읍성 기자



정읍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학생 ‘힐링 가족여행’

정읍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장 최용훈)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025. 힐링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전남 여수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17가정, 총 42명이 참여했다. 정서적 지지와 가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 지역의 주요 명소를 관광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가족 간 소통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깊이 있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원료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자보센터, 익산시 착한 한끼 나눔 행사 진행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는 지난 21일 전문봉사자 83여명과 함께 익산시 전북제일고등학교에서 지역어르신 800여명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함께전북, 착한한끼 나눔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사회적 단절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을 목적으로 한 맛·춤형 자원봉사활동이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함께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세 번째로 익산에서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지역 어르신들에게 짜장면과 떡 등 입맛에 맞는 여러 음식을 대접하고 서급요법, 족욕, 귀만사, 혈당검사 등 건강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눴다. 한편,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행사에 필요한 6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와 나눔 분위기에 활력을 더하고 사회공헌 기관으로서 모범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익산=최지현 기자



전북청년회의소, 고창서 제55차 전북지구 JC 회원대회

전북지구청년회의소(회장 김정환)은 고창청년회의소(회장 박재호) 주관으로 제55차 전북지구 JC회원대회를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고창읍성 잔디광장 특설무대와 고창 스포츠타운 보조구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1일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JC회원들과 지역 인사, 내빈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리더십과 공동체 정신을 다지न्ह인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팔복동 새마을협의회,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 행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정영)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현정)는 지난 20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팔복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연합하여 주최한 것으로, 두 단체는 매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반찬 나눔은 지난 5월 성황리에 개최된 전주 이팝나무 축제 부스 운영 판매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골프존 문화재단·카운티, 무주군에 생필품 키트 기탁

골프존 카운티는 (재)골프존 문화재단과 함께 23일 무주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 키트(즉석밥, 라면, 김, 카레 등) 250상자(1천만 원 상당)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김영찬 (재)골프존 문화재단 대표와 서상현 골프존카운티 대표는 “골프존 이웃사랑 행복나눔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라며 “생필품 키트로 전해지는 먹거리가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무주군이 기탁받은 물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2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